

“포스텍, AI 필수과목으로 내년1학기부터 전면 도입”

김도연 총장 인터뷰

“앞으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20세기 문명국에서 운전면허가 필수인 것처럼 말이죠. 학생들을 대학에서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게 만들어 사회에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텍은 AI 이해도와 사용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AI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려는 겁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9일 인터뷰에서 “2학기부터 AI 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포스텍 학생들이 AI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블록체인 캠퍼스’를 가동한 포스텍이 ‘AI 과목 이수 의무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키워드인 AI와 블록체인을 캠퍼스 전면에 접목하기로 한 포스텍의 파격 실험은 다른 국내 대학들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A6면

김 총장은 “재학생들은 AI 관련 수업 4~6과목(12~18학점)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이 졸업할 때 졸업장과 더불어 AI 수료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AI 분야 교수 약 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그는 “미국 MIT가 AI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정부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AI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민관 모



두분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포스텍은 국내 처음으로 블록체인 캠퍼스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블록

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공유 시스템 ‘엔그램(Engram)’은 지식을 공유하는 기여도에 따라 가상화폐 ‘뉴런’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이 가상화폐로 학내 식당이나 매점에서 결제 용도로 쓸 수 있다. 투표·설문 시스템과 증명서 발급, 학생증, 기부금 관리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향후 연세대와 블록체인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이미 시장에 침투해 있다”며 “이를 하루 빨리 경험해보는 건 학생들 미래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블록체인 캠퍼스 구축 배경을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은 전 세계가 태동 단계라 우리 기술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서 “포스텍의 블록체인 캠퍼스 실험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충격이 작다. 앞으로 발전해 나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끌 인물을 키우는 데 대학이 선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혜·이진한 기자